

'25.5.26.(월)~5.31.(토)

인도네시아, 동티모르

인도네시아-동티모르 출장 결과 보고

2025. 6.

고 용 노 동 부

I. 출장 개요

- (출장국가) 인도네시아(자카르타), 동티모르(딜리)
- (출장기간) '25. 5. 26.(월) ~ 5. 31.(토), 4박 6일
- (출 장 자)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6명

구분	출장자
고용노동부	안성수사무관, 이태진사무관, 김미선주무관, 김선빈주무관
공단	외국인력기획부장, 최소윤과장

- (수행사항) 선발·도입 현황 점검 및 대외 협력기관 방문

<세부일정>

일 시	주요내용
5.26.(월)	12:00-14:55 * 인천공항(T1) 집결 및 출국 수속
	14:55-20:10 * 인천공항 출발→자카르타공항 도착
5.27.(화)	09:00-10:30 * 인도네시아EPS센터 방문 및 업무보고
	10:30-11:30 * 송출기관(이주노동자보호부(KP2MI)) 방문
	14:00-16:00 * 사전취업교육장 방문
	17:00-18:00 *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방문
5.28.(수)	10:30-11:30 * UBT시험장 방문
	11:30-12:30 * 송출기관 자카르타 지사(BP3MI) 방문
	16:00-19:30 * 자카르타 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
	19:30-22:30 * 자카르타공항 출발→발리공항 도착
5.29.(목)	09:30-12:20 * 발리공항 출발→딜리공항 도착
	12:20-14:00 * 입국 수속 및 숙소 이동
	15:00-16:00 * 사전취업교육기관 방문
	16:00-17:00 * 송출기관(해외고용사무소(NDOE)) 방문
5.30.(금)	09:00-10:00 * 동티모르EPS센터 방문 및 업무보고
	10:00-13:20 * 딜리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
	13:20-14:10 * 딜리공항 출발→발리공항 도착(1H 50M)
	14:10-23:45 * 발리공항 환승대기(9H35M)
	23:45-07:55 ⁽⁺¹⁾ * 발리공항 출발→인천공항 도착(T2)(7H 10M)
5.31.(토)	07:55-15:00 * 해산 및 울산 이동

II. 주요 활동(인도네시아, 자카르타) 5. 26.(월)~ 28.(수)

□ 인도네시아 EPS센터 방문(현안사항 청취 · 논의)



EPS센터 업무보고(5. 27.)



EPS센터 업무보고(5. 27.)

- (건강검진 관련) 코로나 이후 송출 전 3번의 건강검진 진행
 - 건강검진에 따른 시간·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회수조정 요청
- (선발시험 효율화) UBT 시험 체제로 전환하고, 현지교포를 활용한 한국어시험 감독 등 한국어시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
 - 인니 정부에서는 수마트라 섬 등에서 시험장 개설 요청이 있으나 EPS센터는 예산·인력 한계로 시험장 추가개설은 어렵다는 입장
- (송출국 동향 공유) ①인니는 사우디, 대만, 홍콩 등 다양한 국가로 인력 송출 중이며, 한국으로의 인력 송출 비중은 전체 대비 3.4% 수준
 - 송출 규모 면에서는 관심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
- ② '24년 10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이후, 인니 내각은 노동자 무상급식 정책에 예산·인력을 집중 투자
 - 외국인력 송출관련 지원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당초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던 사전취업교육 운영에 애로
 - 이주노동자보호부 인력송출 담당 실/국장 교체 이후 EPS센터와의 협조도 다소 어려운 상황

□ **송출기관(이주노동자보호부(KP2MI)) 방문(고용허가제 관련 협력 강화)**



송출기관 방문(5. 27.)



송출기관 방문(5. 27.)

- **(근로자 역량 강화)** 인니 이주노동자보호부에는 근로자의 한국어 역량 증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며, 인니 내 한국어학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는 등 근로자의 한국어 역량 제고 노력 강화
 - 우리측에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면서 인니 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
- **(숙련근로자 송출)** 인니 훈련기관에서 용접·기계 분야 훈련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훈련 수료자(이수자)에 대해 한국측이 요청한 뿌리 산업 훈련과정 없이 한국어시험만으로 취업알선 요청
- **(도입 확대)** 인니 구직자명부가 2만명에 달하며, 한국어시험 점수가 높은 근로자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
 - 신속한 도입을 요청하면서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희망
 - 근로희망 지역선정이 빠른 알선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측의 고용허가 발급 사업장의 지역별 분포 등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문의
 - '23년 대비 '24년 고용허가서 발급 수가 줄면서 전체 E-9 외국인근로자 알선이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고, 이는 송출국 전반의 이슈임을 설명
 - 아울러 구직자명부에 등재된 구직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구직자 명부 등록순으로 알선하고 있음을 설명

- (업종 변경) 조선업종의 명부 등재자를 제조업으로 변경 요청 → 한국어·기능시험 등 차이가 있어 업종 변경은 쉽지 않음을 설명
- (양해각서 갱신) 인니측의 양국간 양해각서 갱신 요청 관련
 - 우리측은 문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갱신하지 못하고 있으나,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문구를 확정하는 등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 제시
- (휴면보험금 찾아주기) 우리측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사업을 활성화 해 줄 것을 요청, 인니측은 휴면보험금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으며, 다른 나라의 우수 사례가 있다면 공유 요청
- (타 비자 송출 확대) E-9 외 다른 비자를 통한 한국 인력송출시 필요한 역량, 업종에 대한 정보 요청

□ 사전취업교육기관 방문(교육 참관 및 시설 시찰)



- (입국 전 교육 강화) 한국어문화,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47시간으로 교육과정 구성·운영
 - 최근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안전교육을 강화(1 → 3시간) 하였으며, 인니 정부의 예산상황이 좋지 않으나, 한국 생활에 인니 근로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 전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음

□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방문 및 대사관/아세안대표부 관계자 면담



비자센터 방문(5. 27.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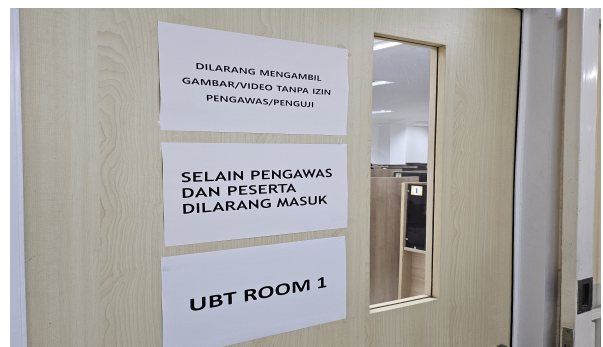
비자센터 방문(5. 27.)

- (비자센터 업무 프로세스 확인) 법무부 입찰을 통해 모두투어가 선정되어 비자신청대행(위탁)업무 수행 중
 - E-9 비자 발급에 5~7일 정도 소요되며, E-9 뿐 아니라 E-7, E-8 등 다른 비자발급까지 병행하여 법무부의 비자신청 처리업무를 대행
- (사증발급 정보 연계) 비자센터에서 EPS센터로 사증발급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고, 법무부와 고용부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
- (국제이슈 공유) 대사관 소속 노무관(이상전, 권순지)을 통해 E-8, E-7 비자 관련 국제 이슈 등을 전달받고, 대응 방안 논의
 - (권순지) 말레이시아 기업이 강제노동(노동착취) 혐의로 지난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,
 - 인력송출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가 근로자의 노동착취에 해당하여 미국에 무역수출 제재를 받은 사례 언급
 - * 한국의 경우 E-8과 E-7 등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는 인력송출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사례와 같이 노동착취로 간주될 수 있어 정부 차원 대응 필요
 - (이상전)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의 요구사항*이 증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증진과 고용허가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부와 EPS센터의 역할이 중요
 - * 항공료를 포함한 송출비용 등 사업주 부담 요청 등

□ 자카르타 UBT시험 참관(시험장 시설 · 장비 확인)



UBT 시험 참관(5. 28.)



UBT 시험 참관(5. 28.)

- 신분증 확인 및 생체인식(지문) 확인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노력중 (최근 발생한 부정행위 0건)
- 시험 문제지는 전날 공단 본부에서 전송받으며, 시험위원 전문교육을 받은 현지 교민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, 하루 5번 시험 진행.
- * 정전 등에 대비하여 UPS(무정전장치) 및 자체 발전기 운영(정전 대비)

□ 송출기관 자카르타 지사(BP3MI) 방문



자카르타 지사 방문(5. 28.)



자카르타 지사 방문(5. 28.)

- (신속 도입) 예년에 비해 구직자 도입(근로계약)이 늦어져 이로 인한 구직자들의 우려 증가, 신속한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요청
- (업종 확대 요청) 인니에서는 대만으로 간병인력 송출 중. 현재 E-9 업종 외 간병인, 간호사 등 다른 업종의 근로자 송출 희망

III II. 주요 활동(동티모르, 딜리) 5. 29.(목) ~ 5. 30.(금)

□ 사전취업교육기관 방문(운영현황 확인)



사전취업교육기관 방문(5. 29.)



사전취업교육기관 방문(5. 29.)

○ (인력송출 현황) 동티모르는 한국, 호주, 일본 등으로 인력 송출 중이며 7천명 정도가 해외 송출중(전 인구의 0.5%)

- 한국은 숙소, 보험 등 근로자 체류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타 국가보다 한국으로의 송출을 선호
- 동티모르 청년의 35%가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, 동티모르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 부여를 위해 해외인력송출 장려 중.
- 향후 귀국근로자 만남의 장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한국으로의 송출 독려 예정

○ (도입 활성화 방안) 24년 998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, 현재 유효구직자 수는 2,800여명이며, 신속한 근로계약 체결 및 한국 송출 희망

⇒ 한국 사업주는 한국어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, 근로자의 한국어 실력 제고를 위해 동티모르 정부차원의 노력을 당부

○ (애로사항) 동티모르의 경우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, 통신비가 매우 비싸 온라인 원서접수, 온라인 교육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

- 한국어 교육은 주로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한국 인력송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국어 교육기관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
- 현재 동티모르 정부 예산으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어학교육 과정을 위탁 운영 중이나,
- 최근 해당 교육기관의 한국어강사들이 급여를 수개월 받지 못하는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

□ **송출기관(해외고용사무소(NDOE)) 방문<업무추진·협조 사항 확인>**



송출기관 방문(5. 29.)



송출기관 방문(5. 29.)

○ (인력송출 다각화)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한국 외에도 최근 일본, 호주 등으로 인력송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음*

* 최근 동티모르 담당국장이 일본 등에 수차례 출장방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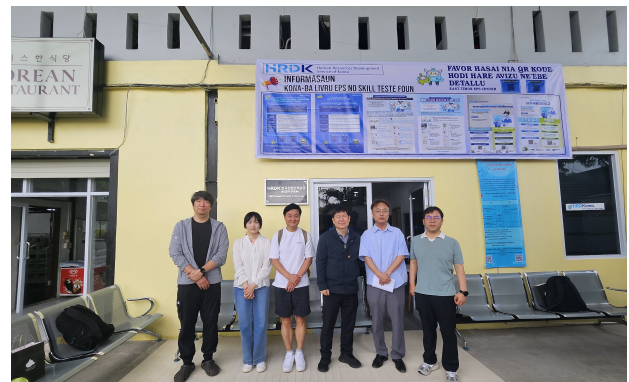
○ (기관 협력 강화) 동티모르 근로자의 한국 송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, 동티모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.

- 한국정부에서 근로자의 직무역량에 중점을 둔 만큼 근로자 역량 강화 방안 검토하고 한국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뿌리산업특화 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

□ 동티모르EPS센터 방문<현안사항 청취>



EPS센터 업무보고(5. 30.)



EPS센터 업무보고(5. 30.)

○ (현지 유관기관 사업 현황) 코이카 등 한국 기관을 통해 동티모르 현지에 다양한 ODA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 간 시너지(연계) 부족으로 단기적인 지원으로 그침.

- ODA를 통해 1천만불 규모의 취·창업센터를 설치(운영)할 예정

* ODA를 통해 확보한 SOC를 운영할 소프트웨어가 매우 취약하여 해당 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제에 적합한 한국어 및 기술 교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

- 우수한 송출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어센터 설립, 한국어교육, 인력 선발·도입까지 EPS센터가 일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함